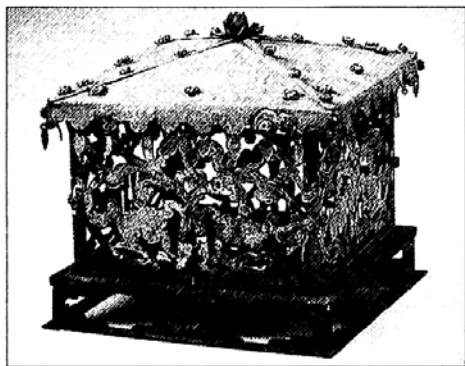


‘불교문화학’이란 새로운 방법론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6월 출범한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시재동)가 11월 30일, 12월 1일 불국사 문화회관에서 한국사회의 불교문화학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문화학회에는 불교사지, 불교민속, 불교음악, 불교문학 등 불교문화와 관련해 그동안 각계각파 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연구를 지양하고 관련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를 종합적으로 이루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출범한 학회.



◇1966년 불국사 석가탑 해체수리 때 발견된 금동제사리외함(국보 126-1호).

사실을 누군가 부가했듯이 일제침략기의 수리와 조사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 1969-1973년의 발굴·복원 사실 등을 추가로 보완 정리해 새로운 <불국사 사적기>를 완성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말했다.

‘불국사와 불교민속’을 발표한 오혜세 교수(동국대)는 석불사지금의 석굴암 연기설화를 통해 불교가 어떻게 이 땅에 토착화했는지를 살펴봤다. 오 교수는 ‘김대성이 곧 꿈 속에서 꿈이 나타나 꿈을 살생한 대가로 절을 지어라 해서 절을 지었다는 것은 불교의 인교문화와 윤회전생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한다’며 “이러한 연기설화는 초기 신신 신앙과 불교가 미칠 없이 조화 수용되는 한 예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교수(충주대)와 강순영 공중유물 전시관장은 각각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사리기를 조명했다. 김성수 교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6년부터 불국사의 창건년도인 751년 사이에 간행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인쇄도서인 만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폈다. 강순영 관장은 “석가탑 사리장치는 의상과 승사에서 통일신라 최절정기의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동명날 ‘사찰 의례와 불교무용(사찰무용 종류와 사찰학춤의 전승보존)’을 발표한 법연 스님(동국대 교수)은 “불교문화예술의 전승과 불교무용의 보존에 관심을 갖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enny@buddhania.com

## “고찰은 불교문화 원형이자 본류”

불교문화학회 학술대회 불국사 집중조명

연기설화, 산신신앙과 불교 조화의 예  
사찰의례 무형문화재 지정 전승돼야

이번 학술대회에는 문학, 건축, 서지, 공예, 민속, 무용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모여 불국사가 지닌 불교 문화적 특징을 파고들어 갔다. 한국불교문화학회는 이번 추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봄, 가을에 한 번씩 한국의 고찰을 순례하며 그 절의 불

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재동 총남대 명예교수는 “절은 불교 문화의 원형이자 본류”라며 “지금도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

조명함으로써 그 절이 지닌 문화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대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적 사찰 불국사. 먼저 ‘불국사’와 ‘목조전각’을 발표한 이강근 교수(경주대)는 “불국사의 역사를 수리·복원사의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금창기>의 내용은 신라시대 내용을 제외하면 입진왜란으로 완전히 파괴된 불국사를 재건해 온 역사를 정리해 놓는 데 불과하다”며 “<고금창기>가 1740년 저술된 뒤에도 1805년까지의 수리

담론과 실천을 낳았다는 것이다. 의상의 무이론(無二論)은 바로 이러한 동일성의 사유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 이 교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 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상호존재 관계라고 한다면 타자에 대해 폭력을 가할 수 없다”며 “의상의 무이론은 20세기를 학살과 전쟁으로 물고 간 동일성의 사

## ‘보조선을 조선불교 핵심으로 규정’

구산장학회 논문발표회



11월 23일 보조사상연구원(www.bojosasang.org) 주최 구산장학회 제7기 구산논문발표회에서 “다카하시의 조선 불교 연구”를 발표한 조남호(서울대 강사 사진)씨는 “<이조불교>를 쓴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1877~1966)를

조남호씨, 다카하시 불교사 연구방법 분석 시키려고 한 책 두부 정좌에 발 맞추어 선교양 중 견수를 주장 한 보조선을 조선 불교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논평을 맡았던 최원식(서울대 강사)씨는 “한국 불교사 연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사색하고 있던 방법론적 틀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됐다”라며 “현실적으로 식민지 청산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사의 틀에서 한국 불교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카하시의 불교 및 각 종파의 성격을 정치적 맥락에서 찾으려 했고, 고려와 달리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조선 불교가 침체되었다고 본 다카하시의 불교 재흥을 위해서는 총독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조선 불교의 정체성이 일제에 있지 않고 보조선에 있다고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 불교계를 선교양중으로 통일 시키려고 한 책 두부 정좌에 발 맞추어 선교양 중 견수를 주장 한 보조선을 조선 불교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논평을 맡았던 최원식(서울대 강사)씨는 “한국 불교사 연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사색하고 있던 방법론적 틀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됐다”라며 “현실적으로 식민지 청산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의상 화엄의 현재적 의미는...

의상만해연구원 7일 낙산사서 발표회

이날 ‘의상사상의 현재적 함의’ 주제 발표를 겸한 이 교수는 “오늘날의 복잡해진 사회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지극한 철학이라 하더라도 현재적 의미는 없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 해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일본의 난징 대학살, 킬링필드 등은 모두 서양 철학의 중심이었던 ‘동일성의 사유’를 극단화하여 실천해서 빚어진 아안이라고 진단한다. 동일성은 타자와 나를 구분하고 대립시키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의

유를 차이의 사유로 전복시킴으로써 현대의 상호텍스트 이론과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형호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는 의상의 대표적 저서 <화엄입승법계도>를 현대 서구철학의 방법론적 틀을 사용해 재해석을 시도한다. 또 김천학(교리대 대학원)씨는 의상 화엄이 중국,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토우 아츠시(일본 동양대학 비상근강사)씨는 의상의 화엄 사상을 중도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의상과 의상 이후의 사상적 차이를 밝힌 예 정이다.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10)

19세기 코미디

단순히 부처님 말씀만 전하고 참선만을 강요해서는 더 이상 일반인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지 못한다. 19세기 불교계는 이 점을 깨닫고 매우 현실적인 포교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민간 신뿐만 아니라 도교의 신들까지 과감하게 끌어들이 불교의 신앙체제로 삼았던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신인 산신, 용왕, 조왕신, 수성노인 등을 불교의 신으로 만들고, 산신각, 독성각, 삼성각 등을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일반인에게 다가갔다. 물론 이전에도

한 자기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104위신중도에는 단지 신들이 늘어난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1862년에 제작된 해인사 대적광전 신중도를 보면, 전혀 의외의 얼굴 모습에 당황하게 된다. 신들이 마치 코미디의 주인공처럼 얼굴표정이 극적이고 변화무쌍하다. 적어도 해인사신중도에 표현된 신들은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들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한 분들이 아르고 있고, 상들의 캐릭터도 매우 개성적이다.



◇해인사 대적광전 124위신중도(1862년) 부분. 해학적인 표정은 19세기 불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불모(佛母들이 신품(神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작품이다. 다양한 표정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상상력도 놀랍거나 그 많은 상들이 부딪힘이 없이 조화로운 구성을 이루고 있고, 상들의 캐릭터도 매우 개성적이다.

해인사신중도에 보이는 해학적 표현은 이 불화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현왕도, 지장시왕도, 나한도, 심지어 석가불화 중 제자상 등 주로 신중과 조사상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19세기 코미디’라는 애칭을 붙여본다. 권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해학적인 형상으로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 불상

## 神位圖 신의 수 39위서 104위로 급증 표정도 변화무쌍...해학적이고 친근감

철성신을 조심스럽게 불교화한 적은 있지만, 이 때만큼 다른 신앙의 신들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적은 없었다. 원래 불교의 신들은 화엄경에 기록된 것처럼 39위(위)인데, 19세기에 와서는 무려 104위로 늘어났다. 104위는 인도 신, 중국 신, 한국 신을 망라하니, 신들의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들 104위의 신을 그린 104위신중도는 조선, 그것도 19세기에만 나타난 독특한 도상인 것이다. 이 불화는 19세기 불교계가 어떤 변신을 꾀하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 당시 불교계의 넉넉한 포용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민간불교로서 정착하기 위

을 보면 어린이와 같은 형상으로 민간에게 다가갔는데, 19세기에는 해학적인 형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여 준 것이다.

불화에 나타난 해학성은 16세기 민간불화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7, 18세기에도 부분적이거나 해학적인 표현이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19세기에 와서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민간불교가 일반인들 사이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불교미술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처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일까?

충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 당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체질을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로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탕을 조정에 돕습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약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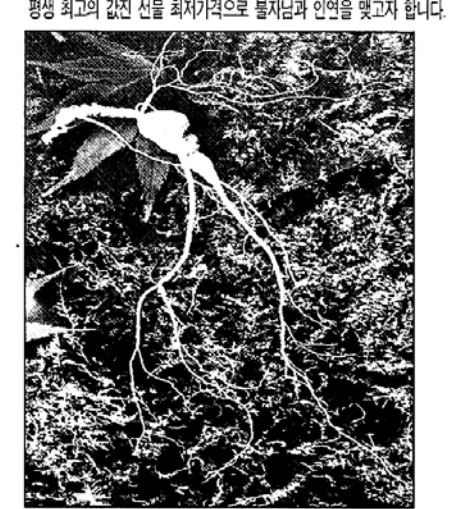
당뇨병 및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대양, 비만증, 무용, 체력증강 - 경년기 장애 등  
- 감각이 결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신조증  
- 피로불 없이도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안, 안절원, 고혈압

조영제비칼리프 Co.  
주요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元·氣·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 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0가지로 모두 360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외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증,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치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국립산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 전립선염비대증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며 천연 자연 생약이라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 40세 이후 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노, 빈뇨, 야뇨, 소변후 불쾌감에서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천연자연생약

### 극제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

- 1 평소 소변을 볼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 2 평소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3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4 평소 소변을 볼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 5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6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7 평소 잠을 자다가(특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루 밤에 몇번 있습니까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